

# 주간보호 지원 축소... 노인복지정책 역행

### “일요일·휴일 지원 제외 월 30만원 이상 추가 부담” 보호자 경제·심리적 부담 가중... “노인학대 처사”

그동안 노인요양보험을 통한 주간보호시설 이용자에게 적용했던 정부의 지원이 올해부터 일부 축소돼 기존의 정책방향이 틀어질 수 있는 노년층에 대한 가족 구성원의 돌봄의 한계와 문제점 해소에 역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은 물론 정서적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2021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0.25%에서 11.52%로 상향 조정했다.

특히 월 한도액 추가 증액률을 50%에서 20%로 조정했고 인정기준도 1일 8시간, 월 20일 이상에서 1일 8시간, 월 15일로 완화했다. 이로 인해 1-5등급별 이용한도액에 대한 경

제적·심리적 부담에 따른 제감도는 등급에 따라 다르다. 1-2등급에 비해 신체적 활동이 자유로운 3-5등급 대상자의 경우, 그동안 지원을 받았던 일요일과 휴일에 대해 100% 자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서귀포시에서 갑골농사를 짓는 A씨는 수년 전부터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인근 주간보호시설에 보내고 있다.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갑골 수확철마다 일손 부족으로 보호시설의 도움을 받아 경제적·심적으로 도움을 받으며 만족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그동안 지원을 받았던 일요일이나 휴일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경제적 부담이 크게 늘어 걱정이다.

A씨는 “한달 전만 해도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어머니를 보호시설에 보내고 월 40만원을 냈었지만 올해부터는 추가로 33만원가량을 더 내야한다”며 “올해 가족이나 갑골농사가 안 돼 큰 손해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 부담까지 겹치면서 걱정이 크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복지부가 지난해 12월 15~17일 공문을 통해 수가 인상에 대한 제주현장의 입장을 물었다”며 “하지만 3일간의 짧은 시간에 답변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특히 추가 부담에 따른 현장의 힘든 사정도 공문을 통해 보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김재현 제주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장은 “한달에 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면 5-8일 정도는 개인이 추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가장 돌봄의 손이 많이 가는 3-5등급 대상자의 경우, 보호자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국민정원은 물론 제주 출신 국회의원에겐 적극 건의도 했지만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했다”며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은 역행하는 것이고, 이는 노인방지를 통한 확대와 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인보호시설센터 관계자도 “보호자들이 딱한 사정으로 무료로 지원하려 해도 유지행위로 법적 제약을 받는다”며 “올해 정부가 적용수가를 올리면서 이용자 감소에 따른 센터 운영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토요일을 평일로 적용하고 양복 교통비도 1인 2200원에서 830원으로 줄인 데다 한달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1인 6000원마저도 없었다.

현재 도내 주간보호시설 이용자는 5000명 이상이며, 이 중 도내 57개소의 주간보호시설 이용자는 1266명이다.

백귀기 기자 haru@ihalla.com

# “고교 무상교육 비용 부담 끝까지 간다”

### ‘타당’ 교육부 법령해석에도, 법제처 ‘유권해석’ 요청 19억원 두고 교육청도 촉각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을 놓고 벌이는 싸움이 결국 법제처의 판단을 받게 됐다.

제주도는 지난달 28일 ‘고교 무상교육 부담비율’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교육부가 정한 고교 무상교육 예산 부담비율 12%(올해 기준 29억원)가 부담하다며 교육부에 수 차례 법령해석을 요청했지만, 그때마다 교육부는 ‘상위법령에 따라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다’는 답변을 제주도에 회신한 바 있다.

교육청의 법령해석이 나왔지만 제주도는 법제처를 통해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무상교육 부담비율 12%는 교육부에서 2017년 결산 기준을 토대로 책정한

것인데, 제주의 경우는 2018년부터 큰 폭으로 상향된 ‘도세 전출금’을 활용, 전국 최초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당초 교육부가 무상교육 부담비율을 책정할 때 제주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지 않았다”며 “법제처의 판단 결과에 따라 내년도 무상교육 예산 부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법제처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은 도교육청도 마찬가지다. 판단 결과에 따라 제주도로부터 받지 못한 2020년 무상교육 예산 19억원을 독촉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향후 제주도에 제기한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19억원을 달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14일 제주도는 올해 고교 무상교육비 240억원 가운데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29억원 전액을 내는 대신 2020년 미납된 19억원도 도교육청이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고 발표했다. 송은범기자



겨울 바람으로 말리는 장태 5일 제주도 한림항 인근에서 어민이 장태를 정성스럽게 말리고 있다. 이상국기자

# 제주시 농수축·경제 분야 사업비 2339억원

강한 1차산업 목표 22% 증액  
계속사업 353건·신규 68건 등

제주시는 올해 ‘강한 1차산업,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육성’을 목표로 농·수·축산과 경제 4개 분야에 총사업비 2339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올해 4개 분야 421개 사업에 2339억원을 투입한다고 5일 밝혔다.

재원은 국비 1013억원, 지방비 962억원, 용자·자부담이 363억원이다. 계속사업이 353건에 1856억원, 신규사업은 68건에 483억원이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수·축산과 경제 분야 관련 예산(용자와 자부담 제외)을 지난해보다 22.1%(367억원) 증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농업분야 82개 사업

(계속 70, 신규 12)에 908억원이 투입된다. >코로나19에 대응한 농산물 온라인 물류비와 비대면 마케팅 지원 등 6개 사업·7억원 >농업인력 육성과 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직불금 지원 등 11개 사업·277억원 >갑골비가림하우스 시설 등 지속성장 과수산업 22개 사업·130억원이다.

수산업분야는 140개 사업(계속 114, 신규 26)에 561억원이 투입된

다. >패조류 투석사업, 마을어장 복원 사업 등 수산자원 조성 및 인력육성 34개 사업·97억원 >근해어선 알파리터 시범사업, 근해어선 유류비 지원 등 어선지원 18개 사업·48억원 >배합사료 직불금, 해조류 종자구입 등 양식지원 8개 사업·74억원 등이다.

축산 분야에는 123개 사업(계속 108, 신규 15)에 63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보들결 제주한우 명품농가 조성,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등 친환경 가축사육기반 조성 52개 사업·187억원 >경주마 생산농가 위기 극복을 위한 경주마 생산기반시설 등 16개 사업·40억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등 가축분뇨 처리기반 구축 19개 사업·316억원 등이다.

지역경제 분야에는 일자리 창출 등 76개 사업(계속 61, 신규 15)에 234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공공근로사업,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등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7개 사업·141억원 >해의 진출기업 수출지원과 농공단지 시설개선 등 중소기업 육성지원 9개 사업·2억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장경영 바꾸어 지원 등 전통시장 운영관리·시설현대화 45개 사업·54억원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 에너지 자립기반 마련 9개 사업·37억원 등이다. 문미숙기자



# 구좌읍 월정리 해변 지정해수욕장 되나

### 어촌해양관광센터 준공 지정해수욕장 고시 추진

아름다운 풍광으로 관광객과 도민이 많이 찾는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해변에 방문객 편의시설인 어촌해양관광센터가 신축됐다. 또 올해 월정리 해변에 대한 지정해수욕장 지정도 추진된다.

제주시는 월정리 해변을 찾는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월정리어촌해양관광센터 공사가 최근 준공됐다고 5일 밝혔다. 월정리 해변 서쪽에 들어선 센터는 지상 2층, 연면적 445.8㎡ 규모로 특별교부세와 지방비 18억원이 투입됐다. >>사진 비지정 해수욕장인 월정리 해변은 뛰어난 해안 경관으로 사회관계망서

비스(SNS) 등을 통해 알려지며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핫플레이스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이들 관광객과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과 안전시설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건축된 센터 1층은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관광안내소, 지역특산물판매장이 조성됐다. 시는 지역특산물판매장 운영을 앞으로 마을과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2층에는 물놀이객 안전을 위한 종합상황실과 이용객들의 포토존을 위한 옥외 데크시설을 만들었다.

또 시는 올해 월정리 해변의 지정해수욕장 고시를 위한 절차를 해양수산부와 협의중이다. 오는 5월 해수욕장협의회 개최시 안건으로 상정해 지정해수욕장 고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그랜드보청기**

**2021년 신축년갑자이벤트**  
\*건강보험공단 제출 서류 업무 대행 해드립니다.\*

**최대 50~70%할인**  
탐나는 전·제로페이 가능

샅샅들 흔저 전화 주셔서! 기다려주세요!

**보청기 가격의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세계최초 인공지능 총전식 귓속형 보청기**  
제주도내 전지역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총전식 보청기 80만원대부터**  
청각장애인 보조금 최대 131만원

NAVER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한라일보 사거리 동쪽 100m 구)행복빌딩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제주센터**

**와이덱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소리와목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덱스 제품

왜 와이덱스 보청기 일까요?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판매처: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제주시청 CGV 광양사거리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 동광로 4, 삼육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 제주은행  
시외버스터미널 오라비올스  
한라체육관  
심내수영장

대표 **임장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

**해외·육지 전문여행사**

여행의 맛과 맛, 재미 모두 준비했습니다.

**특가진행**  
6월~10월 까지

대형우등버스 1일 40만원 부터~  
중형우등버스 1일 20만원 부터~

여행품질과 가격비교 자신있습니다.

**육지 전세버스 보유업체**

**미도항공·미도투어**  
위치: 제주시 용담1동(오라오거리) ☎713-1951  
상담 유옥종 010-5015-1951